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놓고 이견

나주시 정주여건 개선 시민공청회

입주민 "편의 위해 변경 필요"
시 "조성 목적 위배·특혜 우려"
학교 확충·버스터미널 설치 등
피부로 느낄 정책 제안 추진도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나주시는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입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은 ▲클러스터용지 내 다중이용시설(종합병원 및 대학)의 편익시설 허용 및 대규모 클러스터용지 분할 허용 ▲상업용지 내 실내골프연습장 운동시설 규모 확대 및 최고층수 완화 ▲상업·클러스터용지 등의 공공주택용지 변경 및 점포주택 가구수 완화 ▲한옥건축규제 폐지 및 건축물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 등 12개사항이다.

또 시가 분석한 혁신도시 활성화 저해요인은 ▲도시 내 상업용지 과다 및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상업기능 부여 ▲클러스터용지 및 공동주택, 문화·체육시설용지 미개발 ▲주변지역 환경·교육·문화시설 인프라 저조 등이다.

시는 공청회에서 "입주민이 요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재 높은 상가의 공실률과 용지별 공급가격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특혜 발생 및 기존 건축행위자에 대한 권리 침해와 조성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변경 시기 부적절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상대적인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시민의 절대적 공감대 형성 등 전제 요건이 충족될 시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내 종합병원 및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 요구사항은 해결 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제안할 경우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해당사자 간에 특혜 및 상대적 피해가 발생함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입주시설 이용자 등의 최소한 편의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시 행정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요청했다.

또 참석자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보다는 교육시설(중·고교) 확충 및 버스터미널 설치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사례조사·분석 등 관계법규를 재검토해가겠다"며 "변경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성을 우선 고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점이 도출될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긍정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는 지난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290억 규모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나주시, 농림부 공모 사업 1위 선정

나주시가 한전공대 유치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90억원 규모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서 1위에 선정됐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17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선정된 9개 지자체 중 나주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주시는 공모사업에 대비해 빛가람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과 로컬푸드 공공급식 공급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월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도·농 복합형' 선도 지자체에 선정된 것도 공모사업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를 목표로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역별 자원 현황을 고려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 중 하나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 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수 조건이다.

이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경제·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시는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향후 5년 간 12개 사업에 국비·지방비 등 총 29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 융복합 활성화 지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생산농가 기획생산기반 확충, 저온유통체계 구축,'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등이다.

나주시는 이 같은 장기 플랜을 통해 연간 700억원 규모의 관계시장 개척을 비롯해, 월 소득 150만원 2000농가 육성, 200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도농 교류,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푸드플랜 1순위 선정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시행정의 일관된 추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를 비롯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자치농업 구현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

한전공대 유치 기념 오늘 축하행사 개최

나주시는 한전공과대학(일명 켑코텍, Kepco tech) 나주 유치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행사를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나주시는 31일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한전공대 나주유치 축하와 원활한 설립을 기원하는 '화합과 상생, 새로운 에너지 Kepco tech'이라는 주제의 시민 환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영식은 나주시립예술단의 식전공연, 축하동영상 상영, 유치 경과 보고, 유치 선언 등 본 행사에 이어, 송대관, 김정민, 유현상 등 인기가수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 전체 학생 1000여명 규모로 설립된다.

캠퍼스 부지 40만㎡를 비롯해 연구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80만㎡ 등 총 120만㎡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전공대 부지는 지난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송림제 인근으로 최종 확정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유치 성과는 함께 노심초사하며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준 11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하고 당당한 성과"라며 "혁신도시 시즌2 시작을 알리는 한전공대가 세계 일류 에너지 연구 중심대학으로 목표 연도인 2022년까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시·도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요즘 뜨는 영화 '극한직업' 보러 오세요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 맞아
나주문예회관 오늘 무료 상영

나주시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해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생활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최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문예회관은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인 31일 오후 7시부터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사진〉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극한직업은 마약반 경찰 형사들이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낮에는 치킨장사를, 밤에는 잠복근무를 하면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다.

극한직업은 개봉 첫날에만 관객 36만여 명을 불러 모으며 역대 코미디 장르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우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영화상영은 입장권 없이 상영 30분 전부터 선착순(전체 548석) 입장 가능하다.

문예회관은 문화가 있는 날 외에도 매주 주말(토·일요일)에 1일 3회에 걸쳐 최신 개봉 영화를 편당 6000원(만 65세 이상 5000원)에 상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자 안내 서비스를 문예회관에 신청하면 영화·공연 일정 등 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국가 암 조기 검진하세요" 나주시 캠페인

나주시는 최근 나주초등학교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국내 사망원인 질환 1위인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암 검진 비용 및 대상자를 안내하고 여행용 칫솔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2019년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사람이며,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조기 검진 받을 수 있다.

단 검진 주기가 1년인 대장암검진은 만50세 이상 성인모두에게 해당된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5대 암이 발견된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2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연간 220만원까지, 폐암은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암 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